# 동국대, K-불교 세계화 'AI플랫폼' 구축

## 7월 30일,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발표회

**"조선 언해불경 콘텐츠 시맨틱 네트워크 구축"**
**5개년 사업…플랫폼 제작 미디어아트 등 활용 가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는 7월 30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큐레이션 지식정보 관계망 활용 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석 내외빈 기념촬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K-불교 세계화'를 위해 AI기술로 불교한글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플랫폼' 구축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소장 김상일)는 7월 30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큐레이션 지식정보 관계망 활용 사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2024년 11월 시작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1차 연도 성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하정수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단 총괄팀장이 발표한 '1년차 성과보고'에 따르면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15세기 문화의 총아인 18종 88책의 불교한글문화유산이 지닌 지식정보들을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Quration)으로 모으고 시맨틱(Semantic)을 기반으로 연결해 대중들이 편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한다.

'디지털 큐레이션'은 넘쳐나는 디지털 자원을 제공·보존·유지·아카이빙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맞춰 제공하는 기술 서비스이며, '시맨틱'은 정보의 연계를 통해 웹 자원을 지식화함으로써 정보의 효율적 검색·통합·재사용을 도모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하 총괄팀장은 "불교한글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체계적 디지털 큐레이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에 맞춤형 검색 플랫폼 제공도 필요하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불교한글문화유산 디지털큐레이션 지식정보 관계망 활용 사업'은 한글불경의 이미지 수집 및 가공과 현 시대에 맞춘 새로운 번역과 이에 대한 디지털 구현, 시맨틱DB 생성 및 활용 플랫폼 구축 등이 총 5개년 동안 진행된다.

올해에는 〈석보상절〉23·24, 〈월인석보〉8·15·21·25, 〈금강경언해〉 3종 7권의 새로운 번역과 이중 3종 6권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션이 완료됐다. 또한 외부기관과 협력해 △시맨틱맵 작성 △〈안락국태자경〉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아트 제작 △AI-OCR(광학문자인식) 구축 등도 진행됐다.

하 총괄팀장은 "내년 중으로 시맨틱을 연결하고 AI활용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최종 5년차에는 시맨틱맵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베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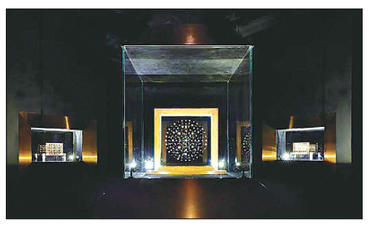
김상일 한국문학연구소장은 "단지 문헌을 정리한 결과물이 아니라, 전통을 현대 기술과 연결하려는 치열한 학술적 노력의 결실이며, 동시에 미래의 문화·교육·콘텐츠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초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대해 불교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동국대 문학연구소의 사업은 시맨틱과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불교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방편"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해외불교는 지금

# 불탑 진신사리, 127년 만에 인도 환수

**1898년 영국인 처음 발견**
**5월 국제 경매 돌연 출품**
**印 "인류 공동 유산 상징"**


지난 5월 소더비 경매에 출품됐던 피프라와 유물들. 사진출처=BBC

지난 5월 국제 미술품 경매회사인 소더비에 출품됐던 피프라와 불탑유물과 진신사리가 마침내 인도로 반환됐다. 한 세기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 성보들에 대해 지난 7월 31일 'BBC', '더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특별 보도했다.

고고학자들이 현대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로 묘사한 피프라와 유물들은 1898년 영국인 윌리엄 클랙스턴 페페가 룸비니 근처의 피프라와의 불탑에서 발굴한 것이다.

1세기 넘게 페페 가문의 소유였던 진신사리와 사리장엄구들은 그간 전 세계 박물관과 특별전에 대여·전시됐다. 한국에서도 지난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스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이야기'에 전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유물들은 돌연 소더비 홍콩 경매에 출품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불교계는 일제히 성토했다. 당시 유물의 소유자인 윌리엄 페페의 증손자 크리스 페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물을 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모든 방안에 문제가 있었고 경매가 "이 유물을 불교도에게 이전하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보인다며 경매에 출품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가속하면서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교적 개입을 선언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매는 취소됐다. 이에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대기업 고드레즈 인더스트리 그룹이 매입 의사를 밝히면서 약 두 달 간의 조율 끝에 고드레즈 그룹이 유물들을 인수했다.

유물 인수 후 피로샤 고드레즈 고드레즈 그룹 부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프라와 유물들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평화, 자비, 그리고 인류 공동의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기여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의미 되짚다

**한국불교사연구소 학술대회**
**8월 22일 동국대 법학관서**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맞아 스님의 문학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와 만해아카이브연구소(대표 이창경)는 8월 22일 오후 1시 동국대 법학관 멀티미디어강의실 163호에서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서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얏서요 어서 오서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수행자이면서 시인,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삶의 궤적을 보인 만해 스님의 사상과 〈님의 침묵〉 속 '님'의 의미를 조명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는 서윤길 동국대 명예교수의 '만해 정신에서 〈님의 침묵〉의 불교적 위상'을 주제로 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정효구 충북대 국문과 교수가 '님의 탄생과 님을 위한 법어(法語)들'을, 박현수 경북대 국문과 교수가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의 관점과 차이점'을 발표한다.

이어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장이 '출간 100년의 〈님의 침묵〉 독자 확산 양상 연구를, 홍승진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님의 침묵〉 정본화의 진전과 평가'를, 정치훈 서울사이버대 외래교수가 '〈님의 침묵〉 새로운 100년의 전망과 비전'을 주제 발제한다.

신중일 기자

# 월탄 대종사 사상·원력 조명한다

**불교신문 · 한국불교학회**
**8월 21일 학술대회 개최**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주지를 역임했던 선지식 미륭당 월탄 대종사 열반 3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금오미륭문도회(대표 성운 스님)와 법주사(주지 정덕 스님)는 8월 21일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륭당 월탄 대종사 선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불교신문(사장 수불 스님)과 한국불교학회(회장 자현 스님)가 공동 주관한다.

조계종 원로의원 보광 대종사(동국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여는 학술대회에서는 월탄 대종사의 삶과 사상, 원력들을 살펴보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월탄 대종사의 수행과 사상'을, 김광식 전 동국대 특임교수는 '월탄 대종사의 정체성과 종단관'을, 김경집 동국대 교수가 '월탄 대종사의 정화운동과 종단개혁'을 각각 조명한다.

또한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월탄 대종사의 불사와 전법'을,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이 '월탄 대종사의 교육관'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 한상길 동국대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연구원 선지 스님,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가 참여한다.

신중일 기자

# 태국 시민사회, 불교계 쇄신 요구

**출가자 형사처벌 요구 높아져**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소(NIDA)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태국 불교도들 사이에서 승단 내의 범계행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불교 전문미디어인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7월 22일 NIDA의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태국 불교계의 여론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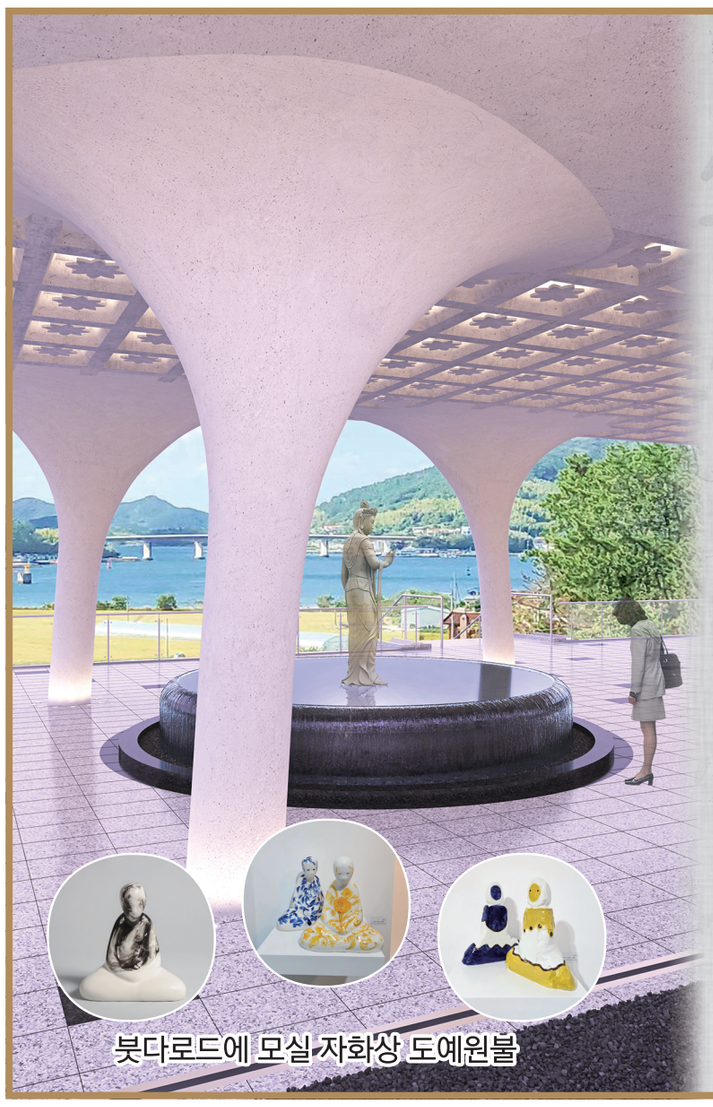
'불교계의 위기'라는 제목의 NIDA 여론조사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됐으며 스스로를 불교인이라고 밝힌 18세 이상 1310명의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먼저 응답자의 76.11%가 가장 많이 언급한 우려는 출가자의 위의에 대한 문제였다. 최근 태국에서는 대형 사찰들을 중심으로 금전, 음주, 여성 문제가 얽힌 대형 스캔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에서는 불교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안 초안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이 법안에는 성직자와 평신도 모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의 80.76%에 달하는 대다수가 승려의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지지했다.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설문조사 결과는 태국 불교 신자들 사이에서 승단 내 개혁과 책임의식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붐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